

조모의 손자녀 돌봄 의도에 미치는 돌봄 경험의 영향 : 동거여부에 따른 비교

The Influence of the Caregiving Experience on Grandmothers' Caregiving Intent for Grandchildren, with Regard to Co-residence

이영숙*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Yi, Yeong Su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grandmothers' intent of caring for working mothers' children and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with regard to living arrange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45 grandmothers who have been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or more than 6 month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 t-test,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to whether the grandmothers were willing t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again, 56.5% answered "yes", while 43.5% were not willing to do so. Those who were not living together with their grandchildren were more likely to answer positively. Second, it was found upon analysis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experience differed according to grandmothers' residential status. In the case of co-residing grandmothers,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the number and age of the grandchildren,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eeling of burden, while onl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in non-co-residing grandmothers' cases. This implies that the more satisfaction the non-co-residing grandmothers experience, the more likely they are willing t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again. As for the co-residing grandmothers, it impli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ndchildren, satisfaction, and feeling of burden, all influence their caregiving intent for the next time.

Keywords: caregiving intent, caregiving satisfaction, caregiving experience, coresidence

I. 서론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은 자녀돌보기가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던 기존 가정의 역할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 이외 자녀를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대안이 나왔고 각종 사회적 시설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여성

의 70.9%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2009), 이는 손자녀 돌봄에 관여하는 조모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린 자녀를 돌보아주는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는 조모가 자녀를 맡기기에 가장 믿을만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취업한 모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 Corresponding author: Yi, Yeong Sug
Tel: 063-469-4623, Fax: 063-466-2085
Email: ysyi@kunsan.ac.kr

담당하는 조모가 갖는 생각은 실제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정에서 조모는 손자녀를 돌보며 노년기의 정서적 심리적인 소외감을 있는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므로(김문정, 2006)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오늘날에도 일부 노인들에게는 여전하다. 최근 조사(김승용, 정미경, 2006)에서도 조모는 손자녀 돌보기의 좋은 점으로 ‘즐겁고 외롭지 않아서’, 그리고 ‘삶의 활력소와 보람이 있어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자녀를 돌보아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조모는 과거와 달리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정미경, 2006),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년 또는 노년기에 자신을 위한 자유 시간을 갖고 취미생활 등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Bowers & Myers, 1999; Orb & Davey, 2005) 손자녀 돌봄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모가 취업한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의 취업활동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김승용, 정미경, 2006; 배지희 외, 2008; 정미경, 2006).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조모는 돌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손자녀를 몇 명씩 돌보며 힘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과 관심을 손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조모로서의 역할이 주는 만족감 및 즐거움(Dolbin-MacNab, 2006)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조모가 이후 손자녀를 돌보아주려는 의도와 관련지어질 것이라는 가정으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돌봄경험이 돌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자녀 돌봄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취업모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줄 한 줄기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취업모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그들의 자녀가치관도 여성이 처한 객관적 환경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 및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므로(이정원, 2009) 조모의 자녀 돌봄이 취업모의 상황을 변화시켜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끌어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아준 경험이 이후 손자녀를 돌보아주려는 조모의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이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임을 고려해 이에 따른 경험이

돌봄 의도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 의도와 경험은 어떠하며 이는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이 돌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하며 이는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조모의 손자녀 돌봄의도

조모가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던 과거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조모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경향으로 조모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조모와 동거하는 가정에서도 과거와 같이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않는다. 이에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려는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밝힌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에 대해 그들의 의도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을 만큼 조모의 선택이 중요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결정될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나 혹은 결혼시키려는 부모들은 손자녀의 출생과 관련하여 양육 조력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적잖이 볼 수 있다. 특히 결혼한(결혼할)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는 조모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에 중성적 혹은 모성적 존재로 간주돼 희생을 강요당해온 여성 노인들의 딜레마로 묘사됨으로써(“손자돌보기 거부하는 할머니들 늘어”, 1992)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시작된 것이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더욱 일반화된 최근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는 노인여성들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전국 59~67세(1939~1947년)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자녀는 가끔 보면서 예뻐하기만 하고 전적으로 돌보는 싫다’는 응답이 55.0%로 절반을 넘었다(“뉴실버가

뜬다”,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가 취업여성의 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함을 당연하게는 생각하거나 또는 실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손자녀를 돌보아주지 않는 것이 조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조모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돌봄 노동이 여성이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일로 여겨져 왔던 일(장혜경, 2006)이라는 생각이 일부 의존한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일, 즉 양육노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이지 않는 고강도의 노동이며 아이들의 영양, 안전, 위생, 요구 등에 지속적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며 하루 24시간을 노동일로 요하는 연속적인 노동의 일상 속에서 수행되는 일이다(장혜경, 2006). 더구나 조모는 대부분이 50대 이후의 노후세대이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2. 돌봄경험과 돌봄의도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의 경험과 돌봄의도를 직접 관련시킨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모가 돌보아야할 손자녀의 수가 많을 때, 손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 조모는 더 부담스럽게 느끼며(Dowdell, 1995; 김오남에서 재인용, 2007) 친손자녀보다 외손자녀가 양육부담이 높다(남명숙, 1999)고 밝힌 결과는 손자녀의 특성과 조모의 심리적인 측면이 관련되고 있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의 수와 연령을 조사한 결과 3-8세의 손자녀 1-2명을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지희 외, 2008). 또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일주일 중 5-6일이 48.6%로 가장 많았고, 7일 동안 돌본다는 조모도 21.1%에 이르렀으며, 또한 하루 중 4-8시간을 손자녀를 돌본다는 조모가 33%로 가장 많아(배지희 외, 2008)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기간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손자녀의 특성이 조모의 심리적 측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보는 시간이나 기간 등 돌보아주는 양도 조모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귀여운 손자도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 돌보게 되면 귀찮아진다는 토로를 하는 조부모들이 있다는 보도(“뉴실버가 뜬

다”, 2006)나 양육기간이 긴 조부모일수록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더 높고 삶의 만족도가 더 낮다는 보고 등(백경숙, 김영란, 2006)이 이러한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최근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 관계임을 입증한 연구에서도 제시하듯이(이지연 외, 2009), 손자녀의 특성이나 돌봄의 양 등이 조모의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 이러한 심리적 측면은 다시 조모의 돌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경험은 이후 손자녀를 돌보아 줄 조모의 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그 정도나 내용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라 조모의 경험이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모 가정에서 대리모역할을 하는 조모는 비취업모 가정에서의 조모보다 역할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조병은 외, 2002) 반면 피곤, 고립, 사생활감소 등의 어려움도 가진다(이미숙 외, 2004).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가정의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전담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은 부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부모들에 비해 여러 어려움이 더 심한 편이라는 Kelly(1993)의 연구결과(김오남에서 재인용, 2007)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모가 손자녀를 어느 정도 돌보는지가 조모의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경험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보호자역할을 하더라도 젊은 시절만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도구적인 보호자밖에 되지 못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런 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Dowdell(1995)의 연구결과(김오남에서 재인용, 2007) 조모가 적절한 역할을 하며 돌볼 때 만족도가 높아지며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에서 조모는 손자녀 돌보는 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응답을 79.8%함으로써(배지희 외, 2008) 만족과 부담이 공존함을 밝히고 있다. 취업모의 어린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느끼는 돌봄 만족의 조사에서도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며(한혜자 외, 2001; 이영숙, 2010), 손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 및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많음을 밝힌 연구 결과(배지희 외,

2008) 등은 이러한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양육경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정다점, 2006)은 취업모의 자녀를 조모가 돌보아주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60세 이상 노인 중 68.3%가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데 이들이 밝힌 함께 살고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통계청, 2009), 자녀와 따로 살고자하는 이러한 노인의 의식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리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노인이 부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족과의 동거가 조모가 부양받는 상황인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인지에 따라 조모에게 미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최근에 조모의 돌봄 만족을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이영숙, 2010), 동거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보다 비동거조모가 돌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하여 낮 동안만 돌보기를 할 때와 같이 제한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만족한다는 결과(Thomas, 1986)나 전일제로 돌보아주는 조모의 만족도가 파트타임으로 돌보아주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Bowers와 Myers(1999)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현재 6개월이상 손자녀를 돌보아주고있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돌보아주는 손자녀는 만 3세-8세로 부모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부부의 자녀이다. 2009년 3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280명을 조사하여 부실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54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는 조모의 일반적사항 변인과 경험 관련변인 및 의도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이다. 이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예비설문지로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조모 20명에게 조사하여 문항 일부를 수정한 후, 현재 대학에서 노년학과 가족학 강의를 하는 전문가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1) 종속변인: 돌봄 의도

돌봄 의도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손자(녀)를 또 돌보아줄 생각이 있다’라는 한 문항으로 질문하여 이에 ‘없다’와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인

돌봄 경험은 돌보아주는 손자녀특성을 묻는 손자녀요인과 직접 돌보아주는 상황과 관련되는 돌봄요인, 그리고 조모의 심리적 경험을 묻는 심리적으로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손자녀 요인은 나이와 돌보아주는 손자녀수, 그리고 손자와의 관계를 각각 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돌봄 요인 중 돌봄 기간과 시간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아준 기간과 시간을 각각 월단위 및 시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돌봄 정도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돌봄 정도는 선행연구(박화윤, 이영숙,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 수행을 알아보는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α =.83). 심리적요인인 돌봄 만족도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돌보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정도’로 정의하고, 선행연구(김연수, 2006; 박경애, 2007)를 참고로 하여 4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점수로 되어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돌봄부담감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겪는 어려움 정도’로 정의하고, 선행연구(권인수, 2000; 김문정, 2006; 배진희, 2007)를 참고로 하여 10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점수로 되어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조모의 돌봄 의도 및 돌봄 경험 변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였고, 그것이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χ^2 ,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돌봄 의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돌봄 경험을 측정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치가 학문적 우려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3.09세로서 60대가 140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80명(31.5%)이었으며 70대 34명(10.2%)의 순이었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보통수준이 165명(65.0%)으로 가장 많았고, 나쁜편 26명(10.2%), 좋은편 63명(24.8%)이었다.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있는 경우가 171명(67.6%)로 많았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없었다.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139명(54.7%)이고 따로 살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115명(45.3%)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137명(53.9%)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117명(46.1%)보다 약간 많았다.

2. 동거여부에 따른 돌봄경험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손자녀의 나이는 약 6.6세, 손자녀수는 1.2명 정도였다. 동거조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나이는 많았으나 손자녀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친손이 외손보다 약간 많았다. 이를 동거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동거하며 돌보는 손자녀는 친손이, 비동거인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는 외손이 많았다.

돌봄기간과 시간을 살펴보면,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 중에는 성장하는 동안 계속, 그리고 하루 온종일 돌보아주는 조모가 상당수 포함되어있어 평균과 중간값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본 기간은 56.32개월로 나타나 척도상의 중간값 58개월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돌봄 시간은 하루 중 13.74시간으로 중간값인 9.0시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동거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동거하는 조모는 돌봄기간이 64.51개월로 중간값보다 높았으나 동거하지 않으면서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는 중간값보다 현저히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돌봄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동거하는 조모는 돌봄시간이 16.25시간으로 중간값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동거하지 않으면서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는 10.75시간으로 중간값보다 약간 높았다. 즉 동거조모가 비동거조모보다 더 긴 기간 돌보아주며 하루 중에도 더 긴 시간동안 돌보아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 동거별 돌봄경험

		계	동거	비동거	검증
손자녀나이(월)	평균(SD)	80.28(27.82)	85.17(29.14)	75.40(26.76)	t=2.76**
손자녀수(인)	평균(SD)	1.23(.41)	1.25(.43)	1.20(.40)	t=.93
돌봄손자와의 관계	친손	135(53.4)	85(61.2)	50(43.9)	$\chi^2=7.52^{**}$
	외손	118(46.6)	54(38.8)	64(56.1)	
	계 N(%)	253(100.0)	139(100.0)	114(100.0)	
돌봄기간(월)	평균(SD)	56.32(32.18)	64.51(32.62)	46.35(28.76)	t=4.64***
돌봄시간(시)	평균(SD)	13.74(9.23)	16.25(9.34)	10.75(8.18)	t=4.92***
돌봄정도(5점)	평균(SD)	3.39(.50)	3.34(.53)	3.45(.48)	t=-1.75
부담정도(5점)	평균(SD)	2.77(.68)	2.96(.61)	2.59(.83)	t=4.05***
만족정도(5점)	평균(SD)	3.56(.79)	3.35(.90)	3.78(.66)	t=-3.91***

** p<.01, *** p<.001

조모가 손자녀를 어느 정도 돌보는 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3.39점 정도로 나타났고, 여기에 동거와 비동거조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거조모가 비동거조모보다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기간이 유의하게 큰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내용은 보호, 교육, 양육 등의 여러 영역에 걸친 역할로 구성되어있어 반드시 동거하면서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모가 갖는 부담감과 만족감은 평균이 2.77점과 3.56점으로 나타났다. 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를 비교해보면 부담감은 동거조모가, 만족감은 비동거조모가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에 조모는 부담감을 더 느끼며 만족감은 적게 느끼는 반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며 만족감은 더 느낀다는 것이다.

3. 돌봄 의도

〈표 2〉 조모의 돌봄 의도 N(%)

구분	전체	동거	비동거	χ^2	
돌봄 의도	없음	110(43.5)	67(48.6)	43(37.4)	3.18*
	있음	143(56.5)	71(51.4)	72(62.6)	
	계	253(100)	138(100)	115(100)	

* $p < .05$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아줄 의도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돌봄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13%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동거여부로 살펴보면 동거조모의 경우 돌봄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약간 많은 (2.8%) 반면, 비동거조모는 돌봄의도가 있다는 응답을 상당히 많이 하였다. 즉 동거하는 조모에 비하여 동거하지 않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아줄 의도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조모의 돌봄경험이 돌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표 3〉은 돌봄 경험 요인이 돌봄 의도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위해 손자녀 요인만을 포함시킨 모델 1과 돌봄요인을 함께 포함시킨 모델 2 및 심리적요인을

포함시킨 모델3을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손자녀변인 3개만을 포함시킨 모델1의 경험 요인이 돌봄 의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2LL값은 152.84이고 모델의 chi-square값은 27.2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결과에서도 실제 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기대치의 차이가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돌봄관련 변인 3개를 포함시켜 설정한 완성된 모델2에 대한 -2LL값은 143.21이고 모형의 chi-square값은 9.63,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결과에서도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모델3에서는 심리적 변인2개를 추가하여 돌봄경험이 돌봄 의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2LL값은 67.71이고 모델의 chi-square값은 75.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결과에서도 실제 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기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거조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8개의 변인들로 구성된 종합모형이 돌봄 의도여부에 대한 설명력은 77.2%로 나타났으며, 8개의 예측변인 중 5개의 변인이 돌봄 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변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로 보았을 때 종속변인인 돌봄 의도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갖는 변인은 손자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계, 만족도, 부담도, 손자녀 나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손자녀수가 적을수록, 친손인 경우, 만족감이 클수록, 부담감이 적을수록, 그리고 손자녀나이가 많을수록 조모가 돌봄 의도를 가질 확률이 커진다. 특히 손자녀수는 조모의 돌봄 의도를 가질 확률을 12.5배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의 돌봄 의도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동거상태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조모의 돌봄 의도는 돌봄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는 돌보는 손자녀 요인과 심리적요인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모의 심리적 요인은 돌봄 의도를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비동거조모의 돌봄 경험 요인이 돌봄 의도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손자녀요인과 돌봄요인을 포함시킨 모델 1,2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즉, 3개의 손자녀 관련변인과 돌봄 관련변인이 포함된 모델은 적합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요

〈표 3〉 동거조모의 돌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3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손자녀 요인	나이	-.03***	.00	15.70	.96 (1.04)	-.06***	.01	14.08	.94 (1.06)	-.09***	.03	10.29	.90 (1.11)
	관계 (친손=1)	1.59***	.46	11.58	4.91	1.56***	.46	11.11	4.76	1.69*	.83	4.12	5.46
	손자녀수	-.31	.47	.43	.73	-.26	.50	.27	.76	-2.49*	1.08	5.25	.08 (12.5)
돌봄 요인	기간					.03*	.01	5.22	1.03	.03	.02	2.44	1.03
	시간					.00	.02	.00	1.00	-.03	.03	.94	.96
	돌봄정도					.04	.02	2.89	1.04	.07	.04	2.89	1.07
심리적 요인	부담도									-.43***	.09	21.85	.64 (1.56)
	만족도									.92***	.22	17.01	2.53
-2LL		152.84				143.21				67.71			
Cox & Snell R ²		.189				.247				.579			
Nagelkerke R ²		.252				.329				.772			
chi-square		27.24***				9.63*				75.49***			
Hosmer-Lemeshow 검정(x2)		13.63				7.06				8.76			

*p<.05 **p<.01 ***p<.001

- 계수(B)가 음수인 경우에는 Exp(B)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범주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참고로, 바뀐 준거범주의 Exp(B)를 계산하는 식은 '1/원래준거범주의 Exp(B)'이다. 유의한 변인만 재계산하여 ()속에 표시함.

〈표 4〉 비동거조모의 돌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3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손자녀 요인	나이	-.01	.00	3.50	.98	-.00	.01	.07	.99	-.00	.01	.49	.99
	관계 (친손=1)	.13	.41	.01	1.14	.16	.42	.15	1.18	.30	.46	.45	1.36
	손자녀수	.62	.54	1.31	1.87	.69	.56	1.49	1.99	.39	.58	.46	1.49
돌봄 요인	기간					-.01	.01	3.04	.98	-.01	.01	1.27	.98
	시간					.01	.02	.21	1.01	.01	.02	.23	1.01
	돌봄정도					.01	.02	.20	1.01	-.02	.02	.60	.97
심리적 요인	부담도									-.05	.03	3.42	.94
	만족도									.35***	.13	6.81	1.42
-2LL		134.91				130.89				119.38			
Cox & Snell R ²		.042				.078				.173			
Nagelkerke R ²		.057				.106				.236			
chi-square		4.54				4.02				11.51**			
Hosmer-Lemeshow 검정(x2)		8.38				2.41				1.48			

*p<.05 **p<.01 ***p<.001

인을 포함시켜 설정한 완성된 모델 3에 대한 -2LL값은 119.38이고 모형의 chi-square값은 11.51으로 통계적인 의미가 있으며, Hosmer-Lemeshow의 적합도 결과에서도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즉 동거하지않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돌봄의도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갖는 변인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만족감이 클수록 조모가 돌봄의도를 가질 확률이 커진다. 이 만족감은 조모의 돌봄의도를 가질 확률을 1.42배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의 돌봄 의도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비동거조모와 동거조모의 돌봄만족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조모의 돌봄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먼저, 조모의 돌봄의도를 설명하는 모형은 손자녀 요인, 돌봄요인, 그리고 심리적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조모의 돌봄의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이 손자녀요인이나 돌봄요인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이라는 점도 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에게 공통된다.

다음에 차이점을 보면, 동거여부에 따라 돌봄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이 달리 나타났다. 동거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수, 나이, 조모와의 관계, 그리고 만족감과 부담감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만족감만이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손자녀를 돌보는 경험이 돌봄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를 돌보아준 조모가 이후 다시 손자녀를 돌볼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56.5%의 조모가 돌봄 의도가 있다고 한 반면 43.5%의 조모는 돌봄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동거조모가 동거조모보다 돌봄 의도가 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는 조모가 상당하며, 조모의 돌봄 의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하여 낮 동안만 돌보기를 할 때와 같이 제한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만족한다는 결과(Thomas, 1986)나 전일제로 돌보아주는 조모의 만족도가 파트타임으로 돌보아주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Bowers와 Myers(1999)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가 느끼는 부담감은 비교적 크지 않고 만족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가 기혼자녀를 도와주려는 마음과 손자녀를 직접 돌보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취업모가 가장 안심하고 손자녀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모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할 여건만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손자녀를 돌보아 줄 조모의 의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은 직접 손자녀를 맡기는 자녀세대에 의해서도 제공되어야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동거여부에 따라 돌봄 시간과 기간을 볼 때, 동거조모는 비동거조모보다 더 긴 시간과 긴 기간동안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거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에는 같이 살기 때문에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돌보아주는 것이 비동거조모보다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돌보며 느끼는 부담감은 크고 만족감은 적게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도 동거조모가 비동거조모보다 돌봄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모에게 지원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조모의 돌봄 의도를 설명하는 모형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손자녀요인, 돌봄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포함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모가 경험한 손자녀요인과 돌봄요인 및 만족감과 부담감으로 구성된 심리적 요인이 돌봄의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거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요인 또는 손자녀요인과 돌봄요인으로 구성된 모형 및 이 두 요인에 심리적요인이 포함된 모형이 모두 적합한 모형임에 반해,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조모의 손자녀요인과 돌봄요인 및 심리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 모형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의 돌봄 의도에 미치는 돌봄 경험이 동거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돌보는 손자녀의 특성이나 돌봄 특성보다는 심리적특성만이 조모의 돌보려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 이 점은 적합한 모형의 설명력에서도 동거조모의 경우 비동거조모의 경우보다 모형의 설명력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의 돌봄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 동거여부에 따라 다름을 밝힌 것으로 조모의 돌봄 방향을 제시할 때에도 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는 차별화된 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넷째, 조모의 돌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 손자녀 나이, 수, 관계, 만족감, 그리고 부담감 변인들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비동거 조모의 경우에는 오로지 만족감 한 변인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조모는 돌보이준 손자녀의 특성과 만족감 및 부담감이 모두 다음에 손자녀를 돌보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하는 조모에게는 구체적인 여러 돌봄 경험이 중요하지만 비동거조모에게는 만족스러운 경험만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돌봄의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동거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수가,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만족감이 돌봄 의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조모의 돌봄 의도는 동거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관련된 변인 즉 손자녀수를 적게 하고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거여부에 따라 돌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심리적으로인을 살펴볼 때, 동거조모의 경우 만족감과 부담감이 모두 돌봄 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만족감만 돌봄 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동거조모의 경우 만족감이 많고 부담감은 적을수록, 비동거조모의 경우에는 만족감이 많을수록 돌봄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동거조모의 경우에 일정시간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돌봄에 국한된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손자녀 돌봄에 대해 인정을 받는 등 그에 대해 갖는 만족감이 돌봄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은 동거여부에 따라 돌봄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서도 동거조모가 부담감은 더, 그리고 만족감은 덜 느끼는 결과에서도 일부 유추가 가능하나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우선, 돌봄 경험이 돌봄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거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려는 조모의 의도는 양적인 조사로는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손자녀를 돌보려는 조모의 의도

를 심도 깊게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돌보이준 경험이 있는 조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예비조모나 돌봄 경험이 없는 조모의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의도의 개념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조모의 돌봄 경험과 이에 따른 돌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점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동거하지 않는 조모가 더욱 증가할 우리 사회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돌봄의도, 돌봄만족, 돌봄경험, 동거

참 고 문 헌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문정. (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용,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자의 인식 조사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연수. (2006).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돌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371-398.
- 김오남.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16, 59-84.
- 남명숙. (1999).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뉴실버가 뜬다(2006. 7. 28)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9. 2. 9, 자료출처 http://kr.search.yahoo.com/search;_ylt=A3ehDatHCcVMBZYAa_mo2MUA?p=%EB%89%B4%EC%8B%A4%EB%B2%84%EA%B0%80+%EB%9C%AC%EB%8B%A4&fr2=sb-top&fr=yfp-t-714

- 박경애. (2007). 사회적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박화윤, 이영숙. (1999). 유아기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 379-410.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 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6-74.
- 백경숙, 김영란. (2006). 손자녀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 손자들보기 거부하는 할머니들 늘어 (1992. 5. 1) 여성신문, 자료검색일 2009. 2. 9, 자료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41953&page=1&ns_id=10&wno=1061
- 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2009. 3. 14) 서울신문, p. 21.
-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영숙. (2010).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돌봄만족과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5-26.
- 이정원. (2009). 유아기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분석-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3-351.
-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지원양육보조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441-458.
- 장혜경. (2006). 아동과 노인은 누가 돌보나. 보건복지포럼, 2006년 5월호, 35-43.
- 정다겸. (2006).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노동에 대한 취업모와 조모의 경제적 지원인식과 향후출산 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65-292.
-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통계청(2009). 사회조사통계.
-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 (2001). 조부모가 제공하는 도움과 이에 따른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봄, 195-211.
- Bowers, B.F. & Myers, B.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Dolbin-MacNab, M.L. (2006). Just like raising your own? Grand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Family Relations*, 55, 564-575.
- Dowdell, E. (1995). Caregiver burden :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3, 3-8.
- Kelly, S.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 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Orb, A. & Davey, M. (2005). Grandparents parenting their grandchildren. *Australian Journal on Ageing*, 24(3), 162-168.
- Thomas, J.L. (1986).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grandparenthood. *Journal of Gerontology*, 41, 417-423.

접 수 일 : 2010. 11. 09.
수정완료일 : 2010. 12. 06.
게재확정일 : 2010. 12. 07.